

개혁복음주의회 제 5호

죄 죽이기

개혁복음주의회 소개

개혁주의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임 및 출판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증거하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신구약 성경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작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 및 그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작품을 선별하여 연구하고 소개하며, 현재 출간되는 여러 해외 작품도 개혁복음주의와 일치할 때 번역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의 작품도 출판하고 연구하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개혁복음주의회 대표 스테반 황

발행처 및 발행인 개혁복음주의회 출판사 • 대표 이성애

총 편집인 스테반 황

기획 출판 가은숙

재정 운영 담당 조병용

연락처 010-7732-5600(스테반 황)



개혁복음주의회 제 5호

죄 죽이기



아더 핑크

•

존 플라벨

•

벤자민 니들러

•

호라티우스 보나르

•

존 오웬

•

마틴 로이드 존스

•

에스겔 홉킨스

•

랄프 어스킨

•

크리스토퍼 러브

© 개혁복음주의회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죄 죽이기

차례 | CONTENTS

1. 죄 죽이기 교리	6
아더 핑크 / 황모세	
2. 죄 죽임의 특성	17
존 플라벨 / 오병재	
3. 아끼는 정욕을 찾아내기	25
벤자민 니들러 / 스테반 황	
4.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33
호라티우스 보나르 / 안선형	
5. 죄 죽임에 대한 지침	44
존 오웬 / 백금옥	
6. 성령에 의한 죄 죽이기	52
마틴 로이드 존스 / 이중원	
7. 죄를 죽이지 못하는 위험들	68
에스겔 홉킨스 / 김성환	
8. 복음에 의한 죄 죽임인가? 율법에 의한 죄 죽임인가? ...	76
랄프 어스킨 / 조현목	
9. 내가 죄를 죽이는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82
크리스토퍼 러브 / 우선동	

역자 소개

◆ 황모세 목사

탈북 신학교(M. Div)/ 고든 콘월(Th. M)
현,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부목사

◆ 오병재 목사

필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 Div)/ 연세대 신학 석사(Th. M),
현,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부목사

◆ 스테반 황 목사

연세대학교(B.Eng.)/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M.Div)/ 비블리컬 신학대학원(Th.M)
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담임

◆ 안선행

인하대학교(BA)
부평소망교회 안수집사/ 번역 작가(영어, 일본어)

◆ 백금옥

◆ 이종원

한국외대 정치외교학 졸업
현, 대한항공 객실승원부 부사무장

◆ 김성환 목사

총신대학원(M. Div)
현, 평강 교회 담임

◆ 조현목

개혁주의를 사랑하고 경건 서적 번역을 즐거워하는 순수한 청년
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정치외교학과 및 스페인어과 졸업

◆ 우선동 목사

한양대학교(B.A.)/ 고려신학교(M.Div)/ 고려 신학대학원(Th.M)
현, 열린문 교회 담임

1. 죄 죽이기 교리



|||||

출처 | Studies in the Scriptures

저자 | 아더 핑크(A.W. Pink, 1886-1952).

목사, 순회 성경 교사, 「성경 연구」 및 수많은 책들과 「하나님의 주권」의 저자, 영국 노팅햄에서 출생.

역자 | 황모세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로마서 8:13).

경건에 관한 교훈(딤후 6:3)은 신성한 교훈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훈의 의도 또는 목적은 올바른 마음의 기질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심어주는 것임을 알려준다. 즉, 주의 교훈은 순결하며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믿음에 계시되는 내용들은 단지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관념이거나 또는 심지어 감탄할 만한 숭고하고 고상한 개념이 아니다. 믿음의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다. 성경에는 순전히 사변적인 지식만을 드러내는 교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교훈은 행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의 감정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은혜의 교리는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속적인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진지하고 바르고 경건하게 살도록 가르친다(딤후 2:11-12).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대부분이(요 7:16) 신비한 것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정욕을 바로 잡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모든 것은 거룩을 증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어떤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더라도 자신이 무엇을 믿든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이 부조리하듯, 나의 신조가 온전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짓는 것 역시 그릇되다.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는 본능적인 사랑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도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의무 이행을 등한시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포기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9-10절을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비난받아 마땅한 끔찍한 목록이 언급되어 있다. 그 목록은 하나님의 기준이 명하는 처신, 곧 바른 교훈의 건전한 본성과 영적인 성향을 거스르고 있는 것들을 담고 있다. 또한 탐욕 또는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는지(딤후 6:10) 살펴볼라. 그것은 일종의 이단으로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떠난

것이다. 이에 대한 끔찍한 예로 가롯 유다가 있다. 그렇다면 죄 죽이기는 우리가 앞으로 이 글을 통해 충분히 말하겠지만 성경의 실천적인 교훈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매우 간략하게 “죄 죽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해 보려 한다. 첫째로, ‘죄 죽이기’가 “육신대로 산다”라는 표현과 병행구절로 놓인 것을 볼 때, 반대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실하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내재하는 죄에 의해 전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타고난 부패에 의해 전적으로 조종당하는 상태이다. 반면, 죄 죽이기는 이것과 반대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 즉, 당신의 옛 본성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당신의 정욕을 섬기지도 따르지도 말고 오직 그것을 굶주리게 만드는 것이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롬 13:14). 육신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욕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육신의 욕구 또는 욕망이 그것들보다 높은 것들에게 적당하게 맞도록 통제되고 순복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죄의 몸의 욕망은 지체 없이 거절되고 단호하게 거부되어야 한다. 영적인 삶은 우리가 우리의 악한 욕망에 복종하는 만큼 지체된다.

이러한 죄 죽이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속하여 존재하는 악한 본성에 기인한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성도는 당장 하나님의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죄의 다스리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나 ‘육신’은 그 성도에게서 뿌리 채 뽑히지 않았고, 그 악한 성향이 제거되거나 개선되지 못했다. 그 더러운 샘은 이 땅에서의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

아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신은 하나님과 경건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갈 5:17). 그러므로 성도 안에는 내재하는 죄와 삽입된 은혜 사이에 멈추지 않는 갈등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내재하는 부패함에 따른 행위뿐만 아니라 부패의 세력 자체를 없애거나 죽이는 것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는 멈추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는 자리에 부름 받았고 그를 그의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주의 교훈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엡 5:11)하라고 권한다.

죄악된 욕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가능하지 않다. 허용된 악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감정을 뒤엎기게 하고 영혼의 평정을 잃게 하며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로부터 그분의 귀를 닫게 만든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겔 14:3). 하나님은 죄를 죽이지 못한 영혼을 결코 기뻐하실 수 없다: 만일 죄를 죽이지 않는 영혼을 기뻐하신다면 이는 그분 자신을 부인하시거나 또는 그분 고유의 속성에 반하여 행하시는 것이 된다. 그분은 악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용납하실 수 없다. 죄는 수렁이다.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진다(시 40:2). 죄는 나병이다(사 1:6). 병이 우리 안에서 더욱 퍼질수록 주님과 우리의 영적 교통은 줄어든다. 의도적으로 죄를 살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다. 죽임을 당하지 않은 죄는 마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며 복음의 온전한 계획에 대적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의 죽음이지, 죄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 려놓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또한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땅에 있는 그들의 지체를 죽이라는 권면을 받는다(골 3:1~5). 사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것은 허망한 생각이나, 차가운 마음, 또는 부주의한 행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장 혐오스러운 옛 사람의 지체였다: 즉,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다. 그리고 8절에서 다시 그것들에 대하여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과 거짓이라. 신자에게 이와 같은 역겹고 더러운 죄악을 죽이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도 침통한 일이다. 이 땅 위의 최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주먹을 꼭 쥐고 꾸준히 죄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 안에는 심한 부패가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이러한 무섭고 큰 죄악들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마귀는 그들의 부패가 반드시 공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유혹을 던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자만이 아무리 많은 마귀의 불화살을 맞더라도 진실하게 “이 세상의 임금인 오겟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라고 단언하실 수 있다.



때때로 가장 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불현듯 가장 끔찍한 죄에 떨어지는 이유는 자만과 부주의함 때문이다. 설교자가 청중에서 살인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믿음의 고백을 떠나 배교하지 말라고 하면, 오직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만이 하사엘처럼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왕하 8:13)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매일 죄 죽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끔찍하고 악한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일까?” 이 문장 속에서 상반되는 개념을 담고 있는 몇몇 구절들을 균형 있게 연구해보면 “육신을 죽이라”고 읽을 수 있겠다. 7장 전체와 8장 초두에서 사도는 모든 악한 행실의 뿌리는 내재하는 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 뿌리가 맺는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부패의 뿌리와 가지를 모두 죽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몸의 행실”은 단순히 외적인 행실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행실을 맺는 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웬이 옳게 말한 것처럼, “도끼는 반드시 나무의 뿌리에 놓여야 한다.” “몸의 행실”은 부패한 속성이 만들어내는 행위들, 곧 우리의 죄악들을 말한다. 몸은 여기서 영혼이 거하는 본래의 거처인 ‘육신’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행위의 주된 도구는 신체인 사실을 의미한다. 우리의 부패는 주로 우리의 외적인 지체를 통해 나타난다: 그곳에서 내재하는 죄가 주로 발견되고 느껴진다. 죄악이 “몸의 행실”로 불리는 이유는 육체의 욕망이 죄악을 낳는 경향 때문만이 아니라, 몸에 의해 죄악이 실행되기 때문이다(롬 6:12). 그렇기에 우리의 일은 육신을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는 것이다. 육신의 충동을 거절하고, 그것의 열

망을 부인하고, 그것의 욕구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일에 충분하겠는가? 그 일은 자연스러운 본성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일이 아니던가? 이것은 신자가 지닌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은혜의 방편과 여러 종교 행위들 그 자체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은 설교자의 영역과 능력을 넘어선다. 전능함이 이 일에 있어서 주된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롬 8:13)에서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의미한다. 그 분은 본질상 거룩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활동에 있어서도 거룩하시다. 그 분은 죄 죽임에 있어서 주요하고 효력적인 요인이다. 우리에게 그러한 보혜사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과 함께 경배를 올려드리자! 우리가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에 빛을 지고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성령의 역사에도 은혜를 입고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깨닫자. 비록 은혜가 중생한 자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죽이기의 행위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다. 은혜를 주신 분께서 죄 죽이기를 시작하시고 야기하시고 인도하셔야 한다.

신자들은 내적인 훈련과 강인한 의지를 사용하여 외적인 절제와 금욕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악한 습관을 멈추고 억누를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이 그 분의 능력을 그들 안에 부어주지 않으시면, 참된 죄 죽임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이 특별한 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새 본성을 주신다. 그



후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신선한 은혜를 공급하심으로 그 본성에 양분을 공급하시고 보존하신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증오와 애통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므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신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게 만드신다. 우리의 마음에 규례와 경고를 가져오시고, 그 마음에 약속을 인 치신다. 그리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본문이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심지어 “성령이 너를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하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한다. 그 대신 “너희가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라고 말한다. 이는 신자는 이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협력 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죄를 죽이는데 있어서 대충 원하거나 마지못해 기도할 뿐, 졸면서 걷는 것처럼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치밀하게 주의하지 않든지 하면서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그 일을 돕지 않으신다. 신자들은 이 일에 대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죄 죽이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진실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실 것이다.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이여! 정욕에 대한 승리를 꿈도 꾸지 말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게으름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그 분의 축복을 얻기 위해 그 분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

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 이 권면은 신자가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의무 실행을 대신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비록 그 분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하라”(요일 5:21)는 말씀 역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극하여 행동하도록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죄 죽이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확고한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하는 과제이다. 중생한 자들은 그들 안에 거룩한 행위에 맞는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중생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가 그들에게 쓰라린 것으로 다가오도록 그 분의 죽음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 선용할 것을 요구 받는다. 그들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받은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는 우리의 미약한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영으로써”만 효력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이든 용인될 수 있을 만큼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해 죄에 대해 죽게 하신다. 즉, 죄와 대항하여 싸우도록 하시고(히 11:4), 죄를 고백하게 하고(요일 1:9), 그것을 버리게 하신다(잠 28:13).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다시 죄와 새롭게 싸우도록 격려하신다. 그분은 거룩을 향한 우



리의 소원을 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시 41:10)라고 부르짖게 만드신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의 독자들여, 여기에 매우 조심스레 담겨진 사랑스런 진리의 균형을 주목하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엄격히 요구되는 반면, 성령의 영광이 분명히 유지되고 있고 신성한 은혜가 부각된다. 신자들은 이 일에 있어 주체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한다. 의무는 그들의 것이지만, 성공과 영광은 그분의 것이다. 우리를 도덕적인 매체로 삼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위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에 따라 수행된다. 동일한 일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일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재하는 죄에 대하여 보다 예민하게 만드신다. 그 분은 양심을 보다 예민하게 만드신다. 그 분은 순결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더욱 깊게 하신다. 그 분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 2:13). 우리가 할 일은 그 분의 책망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거룩한 충동에 반응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참가자를 향한 위로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채무자가 아니시다: 그렇다, 그분은 열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분이시다(히 11:6). 만약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부인하고 거룩을 따라 분투하면서 성령과 교통한다면 우리는 풍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 의무에 대한 약속은 앞 절에서 경고한 사망과 반대된다. “죽는 것”이 죄로

인한 모든 법적인 형벌을 포함하는 것처럼, “사는 것”은 은혜로 인한 모든 영적인 복을 포괄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재하는 죄의 간청을 반대하고 거절한다면, -그러나 반드시 그러할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와 위로의 삶을 살고, 그 후에 영원한 영광과 지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영생”(요일 2:25)은 신자의 현재 소유이며(요 3:36; 10:28) 또한 그의 장래의 목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막 10:30; 갈 6:8; 딤후 1:2). 신자는 지금 영생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서 영생을 받았다. 그는 그의 새로운 본성 안에 영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에서의 영생을 얻지는 못했다. 영광의 삶은 죄 죽임을 요인으로 하여 나타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목적 성취를 위해 수단을 사용하듯이 죄 죽임을 수단으로 하여 뒤따라온다. 거룩의 대로만이 천국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다.

죄가 우리를 내버려둘 때 우리도 죄를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러나 죄가 가장 조용한 것 같아도 조용한 것이 아니다. 죄의 샘은 잔잔할 때에도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가장 안전할 것 같은 때에도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수단을 다해 대항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개발한 방법과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죽이려는 것은 자기 의에 이르게 되며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릇된 종교의 정신이며 본질이다. - 존 오웬

2. 죄 죽임의 특성



|||||

출처 | “The Method of Grace” in the *The Works of John Flavel*, Vol 2

저자 | 존 플라벨(John Flavel, 1630-1691).

영국 장로교인이자 영국 데본셔어주 다트머스의 목회자. 「열린 생명책」과 「마음지키기」와 같은 많은 복음주의 책들의 저자. 그의 선명한 설교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념될 만한 것들이다. 그의 청중 중 한 사람은 “그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매우 가벼운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매우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두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위체스터셔어 브룸스그로브에서 출생.

역자 | 오병재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첫째, 명제의 주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이이다. 그들

은 그리스도께 진실로 속하여 있고, 자기 자신들을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며, 실제로 그분의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 이러한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이다.

둘째, 술어: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라는 것은 육체의 죄악들로서 부패한 본성의 활동과 행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정욕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 지나친 욕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의 정욕을 폐하거나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단지 바르게 하시고 조절하신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는, 부패한 본성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패한 본성이 영혼 안에서 임시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부패한 본성은 한 동안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영혼을 주관하는 권세는 빼앗겼다. 하지만 죽음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진행되었듯이 -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생명이 피를 흘림과 함께 점차적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듯이 - 죄 죽이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위 구절에서 사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부른 것을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가 영으로써 죽이면,” 이것은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게 한다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바울은 위 구절에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는 수치와 고통, 그리고 느린 속도로 죽어가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의 죽음의 유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 죽이기의 주요 방법과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그들의 육체의 부패를 죽이며, 또한 죄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죄를 죽여야 하는 주장과 설득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과 관심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다. 이 사실은 바울의 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5-8)…. 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혼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이다. 이는 복되고 영광스런 부활의 바로 그 토대와 원리가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롬 6:11)라고 말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너희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설득하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를 죽이는 이러한 영향력은 너희의 누릴 복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이다.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곧 주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에게서 이 과정을 제하지 않으신다.” 당신의 죄의 죽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분명하게 현재 당신의 영적인 삶 및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영원한 삶을 증거한다. 죄를 죽이는 것은 당신과 그리스도의 연합의 열매이며 증거이고 그 연합은 당신의 영화에 대한 견고한 기초이며 확실한 보장이자. 따라서 당신은 죄를 죽이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따져보아야 한다.

죄의 죽음 또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의미하는 것: 이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에 의

해 의도되지 않은 것과 원칙적으로 목표된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의미가 무엇인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에서 말할 것이다.

1.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완전한 폐함이나 현재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존재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룩하여진 영혼들은 죽을 때에 그들의 죽은 육체와 함께 영혼의 부패를 벗어 던진다. 이는 현재 우리의 성화의 결과는 아니고 장래에 영화롭게 된 이후의 결과일 것이다. 죄는 이 세상에서 죄를 가장 잘 죽인 신자에게도 존재한다(롬 7:17). 그것은 여전히 거듭난 영혼 안에서 활동하며 욕망을 일으킨다(갈 5:17). 그렇다. 신자들 안에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행위들에 있어서 그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고 또한 사로잡기도 한다(시 65:3; 롬 7:23).

2.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단순히 죄의 외적인 행위들을 억압하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들의 삶에서 끔찍하고 노골적인 행위로 터져 나오지는 않더라도(벧전 3:20; 마 12:43) 그들의 영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희고 공정한 손을 보여주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짓되고 검다.

3.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단순히 죄의 외적인 행위들을 멈추는 것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망들은 그들 자신의 동의나 심지어 일종의 자연스런 죽음으로 죽을 수도 있다.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몸의 지체들은 불의의 무기들이다. 나이 들이나 연약함은 그러한 무기들을 매우 무디게 만들거나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원기가 왕성하고 건강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그 무기들을 죄악 된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마음속에 죄가 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힘이 나 활동이 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늙은 병사가 많은 기술과 정책, 그리고 군 생활에 서처럼 즐거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이와 건강 때문에 매우 약해져서 더 이상 군대를 따를 수 없는 것과 같다.

4.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몸에 심각한 징계를 가하거나 채찍이나 금식이나 그리고 피곤한 순례로 몸에게 벌을 내리는 것에 있지 않다. 이러한 방법은 카톨릭 신자들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하지만 결코 육체의 욕망은 이러한 혹독함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도구인 몸을 탐닉하거나 또는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또한 우리는 영혼의 영적인 부패가 몸에 가해지는 이러한 채찍들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골 2:23). 부패를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는 것은 미신적인 헛된 행위들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힘에 의해 된다. 죄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죄 죽임 또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무엇을 포함하는지 묻는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1.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또한 그분과 연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없이는 부패를 죽이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모든 시도들이나 노력들은 공허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롬 7:5)…。 그 때 죄는 철저히 왕 노릇하고 있었다. 어떠한 절제나 엄격함이나 외적인 심각함도, 그 어떠한 목적이나 약속이나 엄숙한 맹세도, 죄를 죽이거나 파괴할 수 없었다. 죄를 십자가에 효과적으로 못 박으려면 그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 신자가 처음으로 죄의 책망을 느끼던 날에 죄를 죽여 보려고 모든 외부적인 방법들과 수단들을 시도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은 삼손을 밧줄로 묶던 것처럼 별 효력이 없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가 일단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는 죄를 죽이고자 의도할 때 그 시도는 성공을 하게 되고 선한 목적으로 이어진다.

2. 죄 죽임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 이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 4:6). 그러므로 사도는 이러한 죄 죽이기의 일이 어떤 방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는지 알려주고자 이렇게 표현하였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그 일은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힘은 하나님의 것이다.

3.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반드시 영혼 안에서의 죄의 지배가 전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죽임을 당한 죄는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롬 6:12-14). 죄의 지배가 형성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죄의 힘이 충분해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영혼이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죄의 힘이 충분해진다는

것은 적절한 상황에서 죄가 일어나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쾌락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오른손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처럼, 또한 오른 눈이 보기에 유용하고 즐거운 것처럼 말이다(마 5:29). 그러나 죄를 죽인 마음은 죄의 모든 즐거움과 유익에 죽어 있다. 그 마음에는 죄를 통한 즐거움이나 기쁨이 전혀 없다. 죄는 그 마음에 짐이 되고 매일 항의의 원인이 된다. 죄 죽임은 먼저 마음의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이 전제된다. 따라서 죄는 이전처럼 그 마음을 속이거나 그 눈을 가리지 못하며 또한 의지와 정욕을 함정에 빠뜨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영혼을 향해 죄가 왕 노릇하던 자리는 파괴되고 잃게 된다.

4.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영혼 안의 죄의 힘을 점차적으로 약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천천히 그리고 느린 죽음이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매시간 점점 약해진다. 죄 죽임도 그러하다: 그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여지고 있다(고후 7:1). 죄의 몸이 점점 더 약해지듯이, 내면의 사람이나 새 피조물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후 4:16). 이는 성화는 성령님의 점진적인 역사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이 증가하고 그 뿌리가 영혼 안에서 더욱 더 깊어지면, 죄의 힘과 영향력도 그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점점 더 가라앉는다. 그리고 마침내 죄는 그 영혼의 승리와 함께 삼켜진바 된다.

5.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음은 죄를 멸하기 위해 신자들이 모든 영적인 수단들과 거룩한 도구들을 사용할 것을 의미한다.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죄의 죽음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다(롬 7:24). 그러한 바램이 진실하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해

결 방안을 날마다 사용할 것이며, 죄의 기회들을 대항하여 항상 깨어 있을 것이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욥 31:1). 그 마음은 특별한 또는 적당한 죄에 대해서는 보통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 깨어 있다: “나는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시 18:23). 그 마음은 죄를 막아주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시 19:13). 과거의 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겸손한 영혼은 장래의 죄를 철저히 피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고후 7:11).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음으로써 죄에게 틈을 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롬 13:13-14).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당연히 감당하려고 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시 141:5). 거듭난 영혼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 날마다 이러한 죄 죽임의 수단들을 사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죄의 당혹스러운 반향으로부터 구원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하여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오직 죄와의 지속적인 전쟁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존 오웬

3. 아끼는 정욕을 찾아내기



|||||||

출처 | “How May Beloved Lusts Be Discovered and Mortified”
in the *Puritan Sermons 1659–1689, Being the Morning
Exercises at Cripplegate*, Vol 1

저자 | 벤자민 니들러(Benjamin Needler, 1620–1682).

영국 비국교도 목사. 리차드 백스터가 “매우 겸손하고 진지하고
양순한 목사”라고 칭찬 유능한 목사였다. 영국 미들섹스, 레일
햄에서 출생.

역자 | 스테반 황

|||||||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 5:29–30).

바로 앞 구절에서 우리 구주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고 말씀하

신다.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단지 자부심만 갖고 특히 “간음하지 말지니라”(신 5:18)는 제 7 계명은 오직 외적인 부정만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수많은 육신적인 개신교도들을 향해 촉구하신 말씀이다. 자, 우리 구주께서는 이러한 잘못을 고쳐주신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간음할 것이라 하지 않고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한다. 눈과 마음 사이에는 빠른 길이 놓여 있다. 눈과 손은 간음죄를 짓도록 하는데 있어서 여러 차례 이용되며 주된 자극을 일으키기에 우리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러한 심각하고 거룩한 충고를 주신 것이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마 5:29).

나는 ‘오른 눈’과 ‘오른 손’은 우리가 아끼는 정욕이라고 본다.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의 부패를 묘사하실 때 우리 몸의 부분들과 지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곤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 자신의 것일지라도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우리의 죄로 불리는 것들이 있다. 그 죄는 우리의 오른 눈의 죄악들과 우리의 오른 손의 죄악들로서 사람마다 자신이 아끼는 특별한 죄가 있는 것이다. 나는 죄 죽이기 교리를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끼는 정욕을 찾아내어 그것을 죽일 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1. 죄인은 이 죄를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죄를 강하게 사랑한다. 정욕은 마치 돋보기를 지나는 태양과 같다. 돋보기의 초점이 더 맞추어질수록 열은 더욱 뜨거워진다.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욕정을 채울 대상을 향해 특별한 애정을 갖는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창 17:18)라고

외친 것처럼 이 악한 사람은 “오, 이 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이라고 외친다. 이 죄는 그의 베냐민(창 42:36)이다. 그 영혼은 “여기에 뽑아내야 할 죄가 있고, 저기에 잘라내야 할 죄가 있지만 이 사랑스런 정욕도 죽어야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죄인은 죄를 회개하는 것 같고 죄로 인하여 자신과 죄를 정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처벌의 시간이 다가오면 그 사람은 매우 다정한 마음을 지닌다. 그래서 이 죄도 덮어주고 저 죄도 용서해 준다. 오, 그가 어떻게 그의 아끼는 정욕의 목을 자를 수 있겠는가! 만일 그의 사랑하는 죄가 자연사로 죽는다면 - 예를 들어, 음란한 사람이 나이 때문에 이전처럼 음행을 못하게 될 경우 - 그는 그의 친한 친구에게 하듯 죽음까지 그 죄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의 사랑하는 정욕과 헤어져야 하는 사실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우리가 아끼는 정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거룩한 의무들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죄가 우리가 아끼는 죄이다. 물은 차가운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차가울 때를 가장 좋아한다. 아무리 물을 뜨겁게 하여도 물은 다시 차가운 물이 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때때로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그 마음은 곧바로 차가워지더니 가장 좋아하는 죄를 향해 정욕을 품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교만의 죄에 오염되어 있다. 교만은 주의 제자들에게 가장 흔한 죄였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동안 교만한 마귀가 그들의 영혼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주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셨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

3. 우리가 아끼는 죄는 그 죄가 다른 죄들을 명령하고 주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지옥세계에서도 일종의 다스림이 있는 것처럼(바알세불이 귀신들의 왕으로 불린 것처럼) 악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도 어떤 죄가 두드러지면서 다른 죄들을 주관한다. 말하자면, 다른 죄들은 그 죄에 무릎을 꿇고 그 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 죄를 섬기는 종이 된다. 그 죄가 어떤 죄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다른 죄에게 ‘오라’고 하면 온다. 예를 들어, 탐심이 가장 아끼는 죄라면, 거짓과 속임수와 해를 가하는 행위가 탐심을 위해 섬길 것이다. 만일 야망이 가장 아끼는 정욕이라면, 기회주의적인 태도와 사악한 타협이 그 정욕을 섬길 것이다. 만일 행음이 가장 아끼는 죄라면, 시간과 재물과 몸을 남용하는 죄가 행음의 죄를 도울 것이다. 만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죄인 위선이 우리가 아끼는 죄라면(마 23장) 오랜 기도를 하는 척하면서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죄가 그 죄를 도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죄인은 함의 저주를 받는다. 그 죄인은 “종들의 종이 된다”(창 9:25). 그의 다른 죄악들은 그가 아끼는 죄를 돕는 종들일 뿐이며, 그 사람 자신은 그 모든 죄악의 종이 된다.

4. 특별한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그의 특별한 죄이다. 양심은 헬라어로 살펴볼 때 ‘공동지식’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지식’이라는 뜻이다.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의식하는 것이다. 양심은 우리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하나님의 첩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이다.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관찰하며 바울이 담대하게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공동 증인이다(롬 9:1). 자, 당신은 당신이 아끼는 죄를 알겠는가? 양심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라. 당신의 양심이 교만과 욕정과 세속화됨과 하나님의 길을 방해함에 대해 당신을



책망하는가? 오, 양심은 하나님이 보내신 감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양심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철저하게 고려하라.

5. 당신이 아끼는 죄는 책망 받을 때 짜증을 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는 그의 설교를 즐겨 들었다. 이것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는 내가 아끼는 죄이다. 죄인은 누군가가 그의 아픈 곳을 건드리면 위축된다. 눈은 부드러운 부분이라서 당신이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상처를 입기 쉽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강력하고 영혼을 살피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대해 격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제와 봉대만 사용하는 돌팔이 의사들을 좋아하지만 진실한 의사가 찾아와서 그들의 상처를 살펴보고 닦아주고 수술하려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다. 아합은 참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에 대하여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왕상 22:8)라고 말하였다. 오직 나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는 자, 특히 목사는 흠이 없어야 한다. 이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자는 그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6. 당신의 아끼는 죄는 당신 자신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취한 사람을 죽이라고 정죄하였다.

7. 당신이 아끼는 죄는 그 죄를 포장하고 감추고 당당한 척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 더러움과 무절제는 “단지 젊은 때의 성향이고 쪽정이를 심는 것”이라 하고, 사치는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고 하고, 탐욕은 “선한 청지기”라 하고, 교만은 “고

상하고 위엄 있는 정신”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검손’이라고까지 말한다. 동료들 중에는 자신들을 깎아내리며 이를 ‘검손’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하다. 어떤 식이든 악한 것에 대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8. 만일 당신이 어떤 다른 죄보다 한 가지 죄를 더욱 가까이 한다면, 그 죄가 바로 오른 눈과 오른 손 같이 아끼는 죄이다. 삼손은 그 누구도 그의 힘을 제거할 수 없었지만, 창녀 들릴라에 의해 쉽게 무너졌다. 솔로몬은 창녀가 젊은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준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잠 7:21-22). 그녀가 취한 방법은 그에게 아침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꼼짝하지 못하였다. 죄는 꾀는 것을 통해 일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 1:14), 하지만 그 미혹은 마치 왕의 요구가 칙령이 되는 것처럼 매우 강하여져서 힘을 얻게 된다.

9. 당신이 어떤 죄에 대해 죄가 아니기를 바란다면 그 죄는 당신이 아끼는 죄이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마 19:21-22). 그 청년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세상을 버려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되자 근심하게 되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선포한다. 그 어리석은 자는 “오, 하나님은 없어!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라고 말



한다. 이 경우 무신론은 그 어리석은 자가 아끼는 죄이다.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인한 후에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말하기를 원한다.

10.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생각하고 밤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가장 아끼는 죄이다. 우리가 아끼는 정욕은 보통 그 죄인에게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 그는 아침에 그 죄에게 즐거움을 주고, 밤에 마지막으로 그 죄를 놓아준다. 그렇다. 이 사랑스러운 죄는 반드시 즐겨야하기에 주로 침상에서 이 죄와 많은 시간을 갖는다. 시인은 이러한 악인에 대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시 36:4)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죄는 우리의 침대까지 허용하는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된다.

11. 우리가 홀로 있을 때나 쉬고 있을 때 가장 많이 찾아와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우리가 아끼는 죄이다. 어떤 사람이 골방이나 들에서 혼자 있을 때 자연히 어떤 생각이 찾아와서 죄로 나아가게 하고 죄와 친근하게 하면 그 죄는 당신이 아끼는 죄이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표시를 해 두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홀로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귀찮게 한다면 무례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친한 친구일 경우는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동행할 수 있다. 우리가 아끼는 죄는 일반 죄와는 달리 우리가 홀로 있는 곳까지 찾아와 우리와 동행하여준다.

12.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붙들려고 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당신이 아끼는 죄이다. 예를 들어, 탐심이 당신이 아끼는 죄라고 하자. 그 죄

가 얼마나 당신을 비천하고 열토당토않고 또한 비합리적인 위치에 두던가! 당신은 당신의 마을과 교구에서 돈만 붙들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거름 같은 인생을 살아감으로 당신을 아는 모든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 죄를 놓지 않는다. 야망이 당신이 아끼는 죄라고 하자. 당신은 맹세를 했다가도 쉽게 맹세를 깨뜨릴 것이며, 눈가림을 할 것이며, 마치 사공처럼 한 쪽을 바라보면서 다른 쪽으로 노를 저을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더 좋아 보이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러한 불신실하고 불안정한 삶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야망의 죄를 놓지 않는다. 부정이 당신의 특별한 죄라고 하자. 당신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릴 것이며,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이고, 더러운 정욕을 채우기 위해 가산을 탕진할 것이다. 내가 감히 단언하건대 당신은 더러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장 힘들고 천한 일들, 즉 주전자와 접시 닦기, 노 젓기, 땅 파기 등,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4.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

출처 | *God's Way of Holiness*

저자 | 호라티우스 보나르(Horatius Bonar, 1808-1889).

스코틀랜드 목사. 그의 시와 찬송, 그리고 신앙의 소책자들은
19세기에 널리 알려져 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르에서 출생.

역자 | 안선형

|||||

“그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요”(롬 6:2).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
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사실을 알며, 이를 아는 과정에서 내
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를 섬기는지 알고 있는가? 아니
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고민하며 알
아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의 삶은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계 장치처럼 생명력이 없이 거짓으로 포장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자녀처럼 살려고 애는 쓰는데 정작 우리를 단번에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간단한 계획은 잊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 1:12).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믿으려는 시도만 한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개하려고 시도만 한다. 그러다 보니 들은풍월밖에 아는 말이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셨다. 이 말씀에는 조금도 모호하거나 어긋난 표현이 없다 보니 어떤 사람은 이 점에 대해 어떠한 오류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너무 불확실하고 아주 거짓된 주장을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벧전 2:3), 산 소망이 있고(벧전 1:3),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엡 2:5),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히 3:14),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벧후 1:4) 자로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갈 1:4) 자이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찾은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표현하시며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사도들이 일컫는 ‘성도’로 불리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은 거저주신 죄 사함의 증거를 받기 전에는 자신이 선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것



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은 기억한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요일 4:16)는 사실이며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삶의 근원을 발견한 사람이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당신은 안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처음 진실하게 십자가를 만진 순간 이미 영원한 축복은 보장되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으므로 당신을 빼앗을 자가 없다(요 10:28).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실제로 단번에 온전하게 하기보다는 유효하게 온전함을 이루어 간다.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온전하지 못했고 구심점이 없어 낙담하여 흩어진 상태였다. 십자가가 그 구심점을 형성해서 찢겨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시 86:11), 연약한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온전함과 한마음을 만들어 준다. 온전함 또는 한마음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하나 됨을 재생산한다.

십자가는 영적 건강의 근원이다.

십자가에서 나온 ‘능력’(눅 6:19)은 가벼운 질병이든 치명적인 중병이든 모든 질병을 고친다. 이는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사 53:5).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하는 잎사귀가 달린 ‘생명나무’(계 22:2)를

발견한다. 길르앗의 유능한 의사와 온몸에 상처를 입은 향유(렘 8:22, 사 53:5)덕분에 골고다가 길르앗이 되었다. 영국의 개혁자이자 순교자인 휴 래티머(Hugh Latimer)는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여인에 대해 “그 여인은 그리스도가 무척 건강한 분이라 그분께 달기만 해도 나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마 9:20 참조)라고 좋게 평가하였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지만(사 1:5), 이제 병은 사라졌고 피곤해진 마음에 새로운 힘이 다시 솟게 되었다. 쳐다보기만 하면, 더 정확히 말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다(사 45:22). 늦밤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지금 우리에게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렘 30:13)는 말씀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위대한 치료자인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렘 33:6)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평강과 진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료되었다.

치료가 한 시간 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료가 시작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료가 마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혈관에서는 건강한 맥박이 새롭게 고동칠 것이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 십자가가 치료한다.

십자가는 죄를 치유하며 거룩함을 조성시키는 두 가지 능력이 있다. 십자가는 육신의 모든 열매를 소멸시키는 반면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에 자양분을 주며 성숙하게 한다(갈 5:22). 이처럼 상한 영혼이 일부분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완전하게



치유를 받게 된다. 십자가는 마치 남쪽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향유 같은 바람이 최북단의 서리와 습기로 가득한 공기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작용한다.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에 새로운 기운과 힘을 주고, 우리의 모든 목적에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주며, 더 높은 소망과 열망을 갖게 한다. 십자가는 자아를 죽게 하고 세상에 속한 우리의 지체를 무력하게 만든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처럼 처음에 십자가를 바라본 것처럼 매일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혼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악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선은 강해지고 성숙해간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영광을 자랑할 뿐만(갈 6:14)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십자가는 연약함을 나타내는 장소인데 이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고후 13:4). 그런데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된다.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 능력은 단 하나만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 뿐만 아니라 활동과 인내와 거룩함을 위한 능력이다. 거룩하면서도 유익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가까이해야 한다. 십자가는 능력의 비밀이며 승리의 연약이다. 우리는 십자가로 싸워서 승리한다. 어떤 무기도 십자가를 대적할 수 없고, 어떤 적도 십자가를 이길 수 없다. 십자가와 함께 해야 안팎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싸움에 나설 수 있다. 십자가와 함께 해야 선한 싸움을 싸우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씨름을 하고, 대적하고 설 수 있다(엡 6:11-13).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것이다(딤후 4:7).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닮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롬 15:3)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아니하며 고난을 겪을 때도 염려하지 않고 의롭게 판단하실 그리스도께 맡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는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비우며(빌 2:7),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을 받으며(행 5:41), 종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처한 가운데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다(히 11:26).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로마서 6장 10절에서는 이를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하였다)”(벧전 4:1).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2).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어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 말은 바울 한 사람이 줄곧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철저히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한 말이다(두 명의 바울이 아님, 두 명의 다른 사람도 아님). 바울의 반쪽이 이 말씀에 있고, 다른 반쪽이 다른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살아난 자는 줄곧 바울 한 명일뿐이다!

이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비유된다(히 11:19). 모리아산에서 예상외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여긴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여기시고 부활한 자로 대우하셨다! 같은 이삭이지만, 다른 이삭이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바울이지만, 다른 바울이었다! 바울은 그의 법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성품을 변화시킨 어떤 사건을 겪었다. 그는 새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땅에서 나고 흠에 속한 첫 사람 아담(고전 15:47) 대신에 마지막 아담인,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영접했다.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바울이 살지만,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바울은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 한 번 더 다음의 말씀을 비추어 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십자가 곁에 서 있어야 보증자의 죽음을 깨닫게 되고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더욱 발견하게 된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골 3:3).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골 2:20).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런 것들과는 관계를 끊게 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4-15).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9).

로마서 6장 7-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즉,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또는 이미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그리스도께서 대가를 두 번 치를 필요도 없으며 또한 다시 죽으실 필요도 없다 -히 9:27-28)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그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죄를 대신 치신 것이다)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 지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너희 몸을 -롬 12:1)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특히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 있다. 이 구절의 어투와 용어들은 복음과 죄 사함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것과 상당히 다르다. 아, 이 언어는 죄를 끊어내는 것

이 얼마나 강력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깊게 의식한 자에게서 나온 언어이다. 그는 어떻게 정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에 대한 모든 법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어떻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를 감싸고 있는 뱀을 떼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더러운 것이 씻길 수 있는지, 어떻게 죄의 간교함과 맞서 싸우고 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그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발견들 중 하나이다. 죄 사함 자체는 보배로운 것이며, 무엇보다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단계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런 주장을 읽은 후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죄와 용서, 거룩함을 언급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한 용서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성도라고 해도 죄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이 죄를 가지고 다시 성도를 정죄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죄는 이전만큼 그리 심각하지 않으니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끄는 그런 발언들이 있다. 죄를 범하는 성도에게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완전한 지위는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로마서나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은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거하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성경의 언어가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요일 1:9),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이처럼 십자가는 결국 저주를 끊고 정결하게 해준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정결하게 한다. 십자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샘솟는 근원이다. 십자가는 치유하고, 하나가 되게 하며, 능력을 주며, 소성케 하고 축복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고, 전 인생을 통해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서 우리로서는 질 수 없다. 더욱이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지신 십자가다. 그래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여전히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부분은 진실과 정직, 십자가를 지려는 결단을 포함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와 우리가 지려는 십자가는 다르지만, 둘 다 한 방향을 지향하며 우리를 한길로 이끈다. 이 두 십자가는 죄에 대항하며 거룩함으로 부른다. 이 둘은 ‘세상을 정죄’하며 죄로부터 분리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십자가는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지 않고 하늘에 있게 하여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는 사람들의 요구에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한다. 쾌락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내세우는 육신의 궤변은 한순간도 우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고, 천국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하다. 십자가는 우리의 어깨 위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유행과 경박한 것, 정욕과 환상뿐인 아름다움에 대해 전혀 악하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하지 않겠는가?



자, 죄에 대항하여 싸우려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1) 우리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식해야 하며, 이에 그것을 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전쟁의 승리 방법과 전략과 수단과 이점과 승리한 경우들에 대해 잘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이다. (3) 죄에게 치명적인 무기들, 죄를 죽이며 멸망시키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채워야 한다. 이는 전쟁에서 기선을 잡게 한다. 자, 영혼이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죄에 대하여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죄는 칼에 맞아 죽어갈 것이다. 자, 사람이 이 상태와 조건에 이르면 죄의 정욕은 뿌리와 힘에 있어서 약해지고, 죄의 활동과 움직임은 이전과는 달리 점점 더 덜해지고 약해진다. 따라서 죄는 그의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고 그의 평강을 흘지 못한다. 그는 강건하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 죄를 대적하여 싸우되 승리를 얻는다. 그 후 죄는 상당히 죽은 상태가 된다. 이제 그 사람은 그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져오셔서 죄를 죽이는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신다. - 존 오웬

5. 죄 죽임에 대한 지침



출처 | “The Mortification of Sin in Believers” in *The Works of John Owen*, Vol. 6.

저자 | 존 오웬(John Owen, 1616–1683)

회중 교회 목사이며 신학자. 영국 옥스퍼드셔, 스타드햄프톤에서 출생.

역자 | 백금옥

|||||||

당신의 죄를 죽이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주권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이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당신은 승리자로 죽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해 당신은 살아서 육신의 정욕이 당신의 발아래서 죽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목표와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라고 물을 것이다. 이에 대해 몇 가지로 답하고자 한다.

(1) 죄를 죽이는 목표와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된 공급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그 생각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라. 그러면 당신의 모든 정욕들, 곧 당신이 얽매여 있는 그 정욕이 죽을 것이다. 믿음으로 다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라: 비록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또한 죄와 싸우기에도 지쳐 완전히 쇠약해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당신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충만함이 있음을 생각하라(빌 4:13). 당신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은혜의 충만함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돕기 위한 힘과 능력의 보화들이 쌓여있다(요 1:16, 고전 1:19). 당신의 마음 안에 이러한 충만한 것들이 들어와 머물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 높임을 받아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기억하라(행 5:31). 회개함을 주신다면 죄를 죽이는 능력도 주신다.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신다(요 15:3).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 모두가 믿음으로 되기 때문이다(롬 11:19-20).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이 믿음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과 깨달음을 갖도록 훈련하라. “나는 뛰어나지 못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며 물처럼 불안정한 존재이다. 나의 부패는 너무 심각하여 나의 영혼은 패망에 이를 지경이 되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내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되었고 사탄의 거처가 되었다. 나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어겼으며 서원과 맹세는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나는 내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확신하여 왔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속은 것을 알았다. 이제 내게 어

편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없다면 나는 구원도 얻지 못할뿐더러 하나님을 철저히 저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나의 상태와 상황일지라도 축 쳐진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연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자. 보라. 그 마음 안에 모든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그 손에 모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대적들을 죽이실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도움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충분한 공급이 있다. 그리스도는 지쳐서 죽어가는 내 영혼을 취하여 승리자로 만드실 수 있다. 그분은 메마르고 굳은 나의 영혼을 물이 가득한 연못으로 만드실 수 있으며, 나의 건조하고 황폐한 영혼을 물이 솟는 샘으로 만드실 수도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욕망과 격렬한 유혹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곧 사탄의 거처가 되어 있는 이 마음을 주를 위해 풀이 가득하고 열매를 맺는 곳으로 변화 시키실 수 있다(사 35:7).

따라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의 은혜의 충족함을 생각하며 건디게 하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후 12:9).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급과 그 공급의 풍성함을 깊게 생각하고 또한 주님은 어느 때에라도 우리에게 힘과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생각하라.

(2)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움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당신의 마음을 일깨우라. 이 경우 주께서 주시는 도움은 하박국 선지자의 묵시와 같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합 2:3). 당신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주의 도움이 먼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 예수께서 정하신 때, 즉 가장 알맞은 시기에 반드시 도움이 임할 것이다. 당신이 마음을 붙들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도

움을 기대한다면 당신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은 육신의 정욕을 죽이실 것이고 당신의 마지막 상태는 평강이 될 것이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라. 주님이 언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 기대하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사 7:9). 죄 죽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라. 만일 주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및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는 것과 무관한 모든 방법과 노력과 투쟁은 죄를 죽이는 일에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다. 자, 오직 그리스도부터 오는 도움을 더욱 기대하도록 하라.

(3)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하라. 분명히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붙잡히 여기신다. 주님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젖먹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자애로움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7-18). 주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은 몸소 고초를 겪고 시험을 받으셨기에 시험 받는 가련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 모든 만류를 뿌리치실 수 있다. 주님은 시험 받으셨기에 지금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심지어 히브리서 4장 15-16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 말씀은 나의 주장하는 바와 같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사도는 그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 영혼은 말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고대하는 바이다. 나는 죽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며 영원히 상실될 것이다. 도움이 오지 않으면 최악이 나를 압도할 것이다”. 이에 사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도움과 지원과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에 근거해서 기대할 수 있는가? 사도는 15절에서 이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영혼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과 죄를 멸하는데 있어서 훨씬 유효할 것이며, 또한 사람들이 마음을 쏟는 자기 절제와 같은 가장 엄격한 수단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빠른 해결책이다. 덧붙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바라는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정욕과 죄와 부패의 세력에 의해 그의 영혼이 결코 멸망하지도 않았고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다.

(4) 도움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라. 자기가 한 말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의 언약은 하늘의 법칙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렘 31:36). 그래서 다윗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고백하였다(시 130:6). 주의 도움은 약속된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 질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안개와 비가 메마른 땅에 내리는 것처럼 정해진 때에 도움이 임할 것이다.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뭘가를 기대하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다. 동냥을 바라는 거지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집 앞이나 통행 길에 엎드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분의 규례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뭘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그 규례를 통해 주를 모셔야 한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기대이다. 내가 말하는 기대는 근거 없는 허황된 소망이 아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힘차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러한 도움을 기대하며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시험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이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발견하고 사용해서 죄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지 않았겠는가? 그러한 영혼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와 십자가에 의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다. 죄 죽임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죄 죽임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반드시 성취될 과제로서 주께서 죽이신 특별하며 분명한 목적이다. 주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다. 사탄이 주는 첫째 시험에 의해 우리의 본성에 무엇이 들어왔든, 그의 매일의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 그가 어떤 힘을 얻었든,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딤후 2:14). 이것이 주의 목적이고 의도였으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따라서 이 일에 있어서 주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온갖 더러운 욕심에서 깨끗하여지고 죄의 권능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엡 5:25-27).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모든 측면에서 완성되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시는 근원이다(요일 1:7, 히 1:2, 계 1:5).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히 9:14).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또한 추구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됨으로써 죽은 행실이 뿌리째 뽑혀 멸절되어 더 이상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이 목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참으로 성령의 모든 공급과 은혜의 모든 교통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롬 6:2). 신앙의 고백으로 죄에 죽고, 고백에 따른 의무를 감당함으로 죄에 죽고, 특히 죄를 죽이는 효력과 능력에 참여하여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관계함으로 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롬 6:3).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증거로서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분의 어떤 부분과 관련하게 되는가? 바울은 “그의 죽음”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우리가 외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롬 6:4). 이것이 사도가 전하려고 의도한 내용이다. 즉,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였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는 신자들 안에서 다스리던 죄를 멸하심으로써 죄는 그 목적과 다스림을 잃게 되는 것이다.

둘째, 다음의 두 가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거한 믿음을 행하라.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능력을 기대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기도하며 피를 흘리며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당신 마음에 영접하라. 주의 흘리신 피를 당신의 부패에 적용하라. 날마다 이 일을 행하라.

죄는 거룩한 모든 행위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대항하여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못한 자는 아직 거룩에 있어서 그 어떤 성장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 존 오웬

6. 성령에 의한 죄 죽이기



|||||

출처 |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8:5-17, *The Sons of God*, pp. 132-144.

저자 | 마틴 로이드 존스(David Martyn Lloyd Jones, 1899-1981).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캠벨 몰간의 뒤를 이어 영국 런던
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1938년부터 1968년까지 사역하였다.
웨일즈 카디프 출생.

역자 | 이중원

|||||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빳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2-13).

성화는 사람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무언가
를 하도록 요청 받을 때, 그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말씀의 교훈과 권고는 다음과 같

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리스도인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부름 받았다.

우리는 먼저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0절에서 쓰인 단어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의 물리적인 몸(physical body), 곧 자연적인 신체를 의미한다. 이는 ‘육신’(flesh, 타락한 본성을 가리킴)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 위대한 존 오웬 박사도 이 구절에서의 몸을 ‘몸’이 아니라 ‘육신’으로 잘못 해석하였다. 그러나 ‘육신’에 대해 의도적으로 앞에서 다소 많은 언급을 한 사도 바울은 지금은 ‘몸’에 대해 말한다. 그는 10절과 11절에서도 ‘몸’에 대해 말하였고, 또한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하였다.¹⁾ 그는 이 물리적인 몸에 대해서 지금은 여전히 죄가 그 안에 남아있지만, 언젠가는 이 몸이 살리심을 받아 ‘썩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되어 우리 주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는 걸핏하면 오해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몸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말하거나, 물질이 생득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원론으로 알려진 이런 오류를 가르쳐온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반대로,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이 모두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가르친다. 성경은 물질이 언제나 악하고, 그러므로 몸은 항상 악하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한때,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 전인(全人)이 타락하였고, 그의 몸과 마

1)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롬 6:12).

음과 영혼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남으로 사람의 영혼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새 생명을 받는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롬 8:10). 그러나 여전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롬 8:10). 이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비록 그리스도인이 중생한다 하더라도, 죄는 여전히 그의 유한 하며 죽어가는 몸속에 남아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문제는 죄와 대항해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와 부패의 본거지이자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은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우리의 몸도 언젠가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죄가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사도는 이 점을 명확하게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는 몸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행실을 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한다. 몸 안의 본능들이나 그 자체들이 악한 것은 아니다. 본능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잔재하는 죄는 언제나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을 악한 방향으로 왜곡하려고 시도한다. 죄는 우리의 본능이 ‘과도한 욕구’로 변하도록 만든다. 죄는 우리의 본능을 과장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많이 마시게 하는 등 우리의 모든 본능들을 지나치게 탐닉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 본능들은 ‘과도하게’ 된다. 혹,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 악한 본성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끊임없이 요청 받는 훈련과 자기절제의 과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몸에 남아있는 죄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몸의 행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을 죄악되고



악한 것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죽이라’(mortify)는 말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약화시켜(to deaden)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put to death)이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약화시키고 죽여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신약성경의 성화와 관련된 실제적 관점에서의 가르침이며,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사도 바울은 명백히 선포한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써”이다! 물론 분명하게 성령이 언급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분의 임재와 그 분의 일하심은 진정한 기독교의 특징적이고 고유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영으로써”(성령을 통하여)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율법주의와 거짓 청교도의 도덕으로 구별시키는 핵심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당신은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신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힘을 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능력과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도 요한이 말한 바대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요 1:16)라고 말 할 수 있는 자들이다. 뒤에 15장에서 신자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분명 사탄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강력하다. 그러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일 4:4).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말한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이라고 번역된 흠정역 성경(킹 제임스 성경, Authorized Version)의 시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즉,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어떻게 죄를 안 범하는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요일 5:18). 이것이 요한이 말한 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질 수도 없다. 악한 자는 그를 지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질 수조차 없다. 신자는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놓이지 않는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더욱 강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품과 그의 손 안에 쥐어져 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통치한다. 사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쥐고 그의 지배하에 둔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뿐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들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은 그에게 소리칠 수도 있고, 때때로 겁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을 만질 수 없고, 지배할 수는 더더욱 없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는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고 발휘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당신 안에 거하는 영이시다)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교훈은 우리 안에 영으로써 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다. 성령은 능력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발휘하라는 재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실천으로 나타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이해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없고 그러므로 이런 저런 일들을 못한다고 불평하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말은, 당신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그 문제를 “넘겨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벧후 1:2,3).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

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다(벧후 1:3). 또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벧후 1:4).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힘이 없다고 한탄하고 불평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들려줄 대답은 이것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당신에게 주어졌소. 한탄하거나 투덜거리거나 불평하지 마시오. 일어나서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에 의한 능력이 당신 안에 있소. 그러니 당신은 절망적이지 않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 정도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다른 말로, 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한다”. 그는 근시안이다. 그리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이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각을 갖지 못한 자이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중생하지 않은 자인 것처럼 말하고 살아간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은 내게 너무 힘든 일이야”라고 말한다. 베드로는 이런 자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깨달으라고 재촉한다. 그는 깨어날 필요가 있다. 그의 눈이 떠지고 그의 기억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하기보다 일어나 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엡 4:30). 우리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를

범하고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 보다 우리의 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 나는 내게 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내 실수예요.” “저는 이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이 죄가 저를 자꾸만 무너뜨려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한다. 그들은 성령님과 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사람이 만일 자신의 죄악된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 그는 죄 짓는 일을 즉시 그만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그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될 때, 그는 그것을 해결한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주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이 일반적인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벧후 1:10,11). 만일 당신이 내가 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면, 베드로의 말처럼 당신의 죽음은,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은 단순히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승전의 행진이 될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리며 큰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현재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 영화, 즉 우리가 “영주할 처소”(눅 16:9)로의 입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된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더욱 더 영원의 순례자로 여긴다면(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의 모든 태도는 변화될 것이다. 바울은 지금 여기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눈을 그 목적지에 두라. 요한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이 세상과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지 “나그네와 외국인”에 불과함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린다(참조, 히 11:13, 벧전 2:11).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0). 그리고 우리는 그 곳을 향해 가는 중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슴 깊이 새긴다면, 죄를 대항하는 우리의 싸움에 대한 문제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할 때 모든 행해진 것들은 “영으로써” 행해진다는 것과 영으로 밝아진 마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반적인 주제에서 세부적인 주제로 넘어가보겠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은 다음 두 가지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접적 혹은 소극적 관점과 그리고 간접적 혹은 적극적 관점이다.

직접적 혹은 소극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 교훈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이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말씀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절망적’이라든지,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고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넘겨버려야’ 한다는 등의 제안은 전혀 없다.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제어하라” 죄를 짓지 말라, 단번에 그만두라,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당신은 이 모든 죄들, 즉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당신은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유혹이 너무나 강해요”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 신약성경의 해답은 “죄 짓기를 그만두라”이다. 당신은 병원이나 어떤 치유법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다. 당신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제어하라” 당신은 그런 죄악들을 만지는데 전혀 관여해선 안 된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해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엡 4:28).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엡 4:29). 더 이상 시시한 잡담이나 농담을 하지 마라! 그만 두라! 끊어버려라! 이것은 단순한 만큼 또한 실천적이다. 죄를 멈추라!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1-12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자 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엡 5:11,12).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주목하라. “참여하지 말고”. 당신은 단지 그런 일들을 끊어버릴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및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과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자들과는 어울리지 말자는 것이 당신의 주된 신념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나쁜 것이고 당신을 해할 것이다. 우리는 악한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일들로부터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른 단어는 “쳐 복종하게 함”이다(고전 9:27).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고전 9:25), 즉 경주에 나가는 선수들은 자기 스스로 훈련한다. 어떤 큰 운동경기에 나가기 위해 훈련에 돌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먹는 음식을 매우 세심히 주의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 그들은 얼마나 조심하는가! 그리고 이는 모두 그들이 상을 얻기 위함이다!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더 훈련해야 할 것이다. 몸은 “쳐 복종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몸을 복종시킬 수 있는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고 말씀하신다. 너무 많이 먹거나 마시지 마라.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나 많이 몰두되지 마라. 충분하고 적절한 음식을 취하라. ‘방탕함’의 죄를 짓지 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이나 음료 또는 그 외의 어떤 것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탐닉한다면,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거나 그 몸의 행실을 죽이기는 더욱 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피하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규칙적이고, 절제되고, 정돈된 삶을 영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무기력해지고, 무겁고, 둔해지며, 굵



튼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 사이에는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몸을 쳐 복종하게”하라.

또 다른 행동원리는 사도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서신 속에서 나타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4). 만약 당신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 사도가 말한 의미를 매우 명백하게 발견한다. 이것이 그 처방전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시 1:1). 만일 당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다면, 거리의 구석에 서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일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지나간다면, 당신이 다시 죄를 지음으로 비참해하고 불행해하며 집에 간다 해도 놀라지 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더구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서는 더더욱 안 된다. 만약 당신이 그런 장소에 가게 된다면, 당신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인지했다면, 그들을 피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 당신은 아마도 “저는 그들을 도울 생각으로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들은 번번이 저를 죄를 범하는 데로 이끌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들을 도울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욥기서에서 지혜자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욥 31:1)라고 고백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앞을 똑바로 바라보라, 좌로나 우로 돌아보지 말고, 두리번거리는 너의 눈을 주의하

라. 그 눈은 거의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눈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할 것을 찾는다.” 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눈과 약속하여라”. 당신을 죄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것도 보지 않기로 하라. 만약 그것이 고대(욥의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신문과 영화, 대중음악과 텔레비전 같은 것들이 있는 오늘날은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겠는가! 만일 사람이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그 때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읽는 것을 주의하라. 어떤 신문이나 책, 잡지들은 당신이 그것을 읽는다면 당신을 해칠 것이다. 어떤 것이라도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당신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피해야 한다. 그들의 길을 엿보지 마라.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한다. 강력한 복음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복음을 주심에 감사한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구세주를 영화롭게 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의 다음 관점(간접적 혹은 적극적 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당신 안에서 죄와 유혹의 발생과 움직임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즉,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그 증상을 처리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파멸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우리가 배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3-15).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은 유혹이다. 욕망에 대한 약간의 자극과 유혹이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야 할 지점이다. 만일 당신이 그 단계에서 그 유혹을 다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싹이 나는 순간 잘라버려라. 단번에 처리하라. 그것이 발을 디딜 틈을 절대로 내주지 마라. 그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마라. 아마 당신은 이처럼 말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아 글썄요, 저는 그 짓은 안 할 겁니다.” 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품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당신의 상상 속으로 그것을 즐기게 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즐긴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당신의 마음속에 허락한 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싹이 올라오는 순간 잘라내라. 그것과 상관하지 말고 처음 순간에 즉시 멈추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야고보가 묘사한대로 비참한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것이 ‘억압’을 뜻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단순히 유혹을 억압하거나 당신 안의 죄의 첫 번째 움직임을 억누른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강하게 올라올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나도, 억압은 언제나 나쁘다는 현대 심리학에 동의한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누군가가 물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신이 죄의 첫 번째 움직임을 느낄 때, 곧바로 당신은 멈춘 후 이렇게 말하라고 할 것이다. “나는 이것과 어떠한 거래도 맺지 않겠어.” 그것을 들춰내고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악한 것이고 비도덕적이야 이것은 첫 번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몰아낸 바로 그 죄라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직시하

라. 죄를 비난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미워하라. 그렇게 해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그 죄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그저 두려운 마음과 소심한 태도로 그 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끄집어내고, 노출시키고, 분석하여라. 그리고 당신이 그 죄를 미워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비난하라.

이 주제에 대한 나의 마지막 논점은 이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반드시 죄악에 빠질 것이다(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될 때, 당신 자신을 너무도 쉽고 빠르게 회복시키지 마라. 고린도후서 7장을 펴서 바울이 한 말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회개를 이루는 것이요”(고후 7:10). 다시 한 번 당신이 한 일을 명백히 드러내라. 그것을 바라보고 분석하라. 들춰내고 비난하고 미워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을 비판하라. 그러나 당신 자신을 지나친 우울증과 절망감에 빠질 정도로 몰아가지는 마라! 우리는 늘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너무도 가볍거나 혹은 너무도 심각하다. 우리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렘 6:14).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망과 어둠 속에 내던지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다시금 정죄함 아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똑같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당신 자신과 당신이 한 일에 대해 정직한 진단을 실시하라. 그리고 철저히 당신 자신과 당신의 행동을 정죄하라. 그러나 그 후에는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예외도 없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요일 1:9). 만일 당신이 이 일을 “가볍게” 행한다면, 당신은 그 죄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다. 한편 당신이 스스로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면, 당



신은 너무도 절망하여 더욱 더 최악에 빠지게 될 것이다. 절망과 실패의 분위기는 우리를 더 심한 실패로 이끈다. 이 두가지의 실수 중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라.

7. 죄를 죽이지 못하는 위험들



|||||||

출처 | “The Great Duty of Mortification” in *The Works of Ezekiel Hopkins*, Vol.3

저자 | 에스겔 홉킨스(Ezekiel Hopkins, 1634-1690).

성공회 목사; 영국 옥스퍼드, 모들린 대학 교목, 아일랜드 데리의 주교, 그의 저작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실천적임. 데번셔 주 크레이톤, 샌포드 출생.

역자 | 김성환

|||||||

1. 죄를 죽이는 과정이 없다면, 은혜의 목적을 좌절시킨다.

사용되기만 한다면 마침내 틀림없이 승리하는 그러한 고귀하고, 능동적이고, 신성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으셨는가? 정욕과 유혹이 당신의 영혼을 장악하여 당신을 먹이로 삼을 때, 그 과정을 점검하고 그것을 당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가? 은혜는 죄를 대적하는 자연스런 반감과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은총의 범주 안에서는 죄가 자연스럽게 반드

시 파괴된다. 사도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갈 5:17)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런 대적 아래 가만히 온순하게 계시는가? 사도는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성령”은 또한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한다. 은혜는 그 마음 안에서 부패가 들썩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곧바로 대항한다. 은혜는 부패를 무너뜨리고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거짓된 마음은 그 은혜를 대적하며 또한 동조하지 않는다. 다음을 생각해보자.

(1)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배은망덕과 불의의 천박함이 아닌가? 당신 안에서 태풍처럼 일어나 분노하며 횡포하려는 심각한 타락을 다루기에는 당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줄 그분의 거룩한 은혜의 보조 수단들과 지원을 보내주셨다. 당신은 그러한 도움을 저버리고 오히려 오용할 수 있다. 심지어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신의 정욕으로 그 도움들을 거절한다.

(2) 당신은 당신 편에 서서 당신을 위해 싸우려는 아군을 무시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광기와 어리석음이 아닌가? 아 슬프다! 이 싸움은 은혜가 아니라 당신이 치러야 할 싸움이다. 이 싸움은 당신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저주 못지않게 중요하다. 부패가 당신을 대적하여 온몸에 다가오고 마귀가 생각 속에 부패를 가져올 때, 당신 스스로 그 많은 대적들을 대항하여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은혜가 당신 곁에 기다리며 확실한 도움을 권유하는데, 당신은 그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정욕과 대항하여 싸우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만일 그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이는 은혜의 유용함과 역할을 무효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2. 죽이지 않는 죄는 은혜의 목적과 사용을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도 더 악한 것은 은혜를 약화시키고 헛되게 한다.

은혜와 부패는 동일한 한 영혼 안에서 동시에 강하고 활기차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가 번창하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무력하여진다. 신속하게 자라나는 많은 해로운 잡초와 같이, 당신의 영혼이 죽이지 않는 죄로 휩싸이게 되면, 은혜는 쇠퇴하고 시들어진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은혜에게 영양을 주는 수액을 마실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은혜가 힘과 아름다움을 강력하게 가지도록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의무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음식과 운동만 있으면 된다. 이를테면, 거룩한 생각은 은혜의 음식이고 거룩한 의무는 운동인데, 이것들에 의해 은혜는 호흡을 하며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나 죽이지 않는 정욕은 은혜가 거룩한 생각과 의무로부터 힘을 얻는 것을 방해한다.

(1) 죽이지 않는 정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그 정욕으로 이끈다. 죽이지 않는 정욕은 모든 생각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의 정욕은 일부 생각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주고, 다른 생각들에게는 다른 심부름을 주어 모든 생각들이 그 일들을 하느라 분주하여진다. 죽이지 않는 죄, 곧 탐욕, 교만, 음란이 있는 곳에 이런 정욕을 채워줄 생각들과 상상이 어찌 가득하지 않겠는가! 어떤 생각은 그 정욕의 일에 매료되고, 어떤 생각은 그 정욕을 화려하게 치장하며, 또 어떤 생각은 그러한 정욕을 영혼에게 칭송하며 바쁘게 속삭인다. 그뿐 아니라 그 어떤 생각도 비어 있지 않도록, 정욕은 어떤 생각에게는 결코 있었던

적도 없고 또한 있을 법도 하지 않은 허황된 망상을 상상하는 일을 맡긴다. 이러한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필자는 당신의 경험에 호소한다. 사실 이는 좋은 표시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죽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당신의 상상을 더럽히고 당신의 생각의 흐름과 경향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살펴보라. 당신의 생각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여 돌아오는가? 당신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환상적인 부요함과 소유, 소득, 구매를 당신에게 제시하고 또한 그것을 실체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항상 구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죽지 않은 정욕은 탐욕이다. 당신의 생각이 늘 자신의 완전함에 있으며 그것으로 고민하는가? 상상 속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에 엮으려 숭배할 수 있는가? 또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타인의 상처와 고통에 눌러앉을 생각을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죽지 않은 죄는 교만이다. 우리는 이런 시험으로 나머지 정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지 않은 정욕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부패한 상상으로 나아가도록 하면, 은혜는 양식이 부족하여 곧 굶어 죽게 된다는 점이다. 은혜가 시들어 부패하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 죽지 않은 정욕은 거룩한 의무의 삶과 생명력과 영성을 크게 방해하고 간섭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러하다. 즉, 죽이지 않는 정욕의 죄책감이 마음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그 정욕의 힘으로 마음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 죽이지 않는 정욕은 양심에 죄책감을 안겨줌으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약화시킨다.** 아, 어찌하라!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죽지 않는 정욕이 있는 것을 의

식하며, 어떻게 우리가 영의 자유를 안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는가? 말해보라.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진 채 기도할 때, 당신의 양심이 당신 얼굴에서 날아다니며 당신의 입을 막지 않는가? “도대체! 죽지 않는 친숙한 정욕을 마음에 품고 키우면서, 죄의 용서를 위해, 죄와 맞서 싸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알고 있는 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죄에 대항할 은혜를 구하는가? 그런 기도가 위선과 위장이 아니겠는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 만약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기도는 주님에게 가증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지금 당신의 양심이 이와 같이 당신을 고소한다면, 그러한 죄책감이 당신이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크게 약화시키지 않겠는가? 분명 죄책감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보다는 우리의 심판자로 의식하게 하면서 불신과 망설임 그리고 노예와 같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채운다.

*** 죽이지 않는 정욕은 그 힘으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거룩한 의무를 방해한다.** 죽이지 않는 정욕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정욕은 사소한 애정에 얽매이며, 생각을 분산시키고, 영혼 전체를 산란하게 하기 때문에 의무를 감당하더라도 기껏해야 깨어지고 조각난 의무만을 할 뿐이다. 여기에 사탄의 간교함이 숨어 있다. 즉, 그 영혼 안에 다른 죄의 정욕보다 훨씬 덜 죽지 않는 부패가 자리 잡고 있다면, 사탄은 분명히 그 부패를 사용하여 거룩한 의무를 행하려는 그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할 것이다. 이처럼 정욕이 거룩한 의무를 방해할 때, 은혜는 호흡도 운동도 갖지 못한다. 이에 은혜가 시들고 소멸하



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 일부 천박하고 가증스런 실제적인 죄는 죄 죽이기를 소홀히 한 탓이다.

우리가 어떤 신자가 어떤 악랄한 부정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목격할 때, 그 부패는 자신의 죄를 죽이는데 소홀히 한 것이기에 그것을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내면의 부패한 감정이 영혼에게 간청하고, 유혹하고, 성가시게 조르는 것이 허락될 때, 이는 정욕이 이미 감정을 장악했다는 표시이다. 이제 양심은 누워 잠잘 수 있고, 아무것도 행동으로 표출되는 정욕을 막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패가 내면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정욕의 경계선을 정하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생각이나 공상은 어디든지 가도 되지만, 양심 너는 그것이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라고 말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위험에서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정욕이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죽이라! 정욕의 움직임과 일어남을 억압하고 제압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경건한 방탕의 수위가 얼마나 커질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가장 작으면서 가장 사소한 죄악 된 생각이 무한한 죄책감을 낳는다. 하나님에 대한 합당치 못하고 부적절한 생각은 잔혹한 신성모독을 낳는다. 모든 음탕한 생각은 더러움에게 문을 열어주며, 모든 질투의 생각은 피의 살인을 가져온다. 이러한 정욕의 움직임을 억누르고 짓누르기 위해 날마다 죄 죽이는 일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당신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죄로 나아갈지 알 수 없다.

4. 하나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로

부터 마음을 심히 멀어지게 한다.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교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의 성령님의 은혜로운 교통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붙여넣으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그 영혼과 친교를 갖는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신실하고 정직한 순종의 보답으로 하나님과 더 붙어 거룩한 기쁨, 자유 그리고 빈번한 교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죽이지 않은 정욕은 이 친분을 깨뜨려 두 쌍방이 서로 무관한 관계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

(1) 죽이지 않은 정욕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성령님의 영향력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편에서 친교를 단절하도록 야기한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찢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사 57:17)

(2)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길 바란다면, 우리의 영혼이 굳건한 영성의 틀과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죽이지 않은 하나의 정욕은 그 영혼의 틀과 안정을 흔들어 혼란하게 만든다. 가깝던 친구들 사이에 어떻게 멀어짐과 거리감이 생겨나 크게 자라나는지 보라. 하나님과 영혼 사이의 멀어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의 친구에게 행한 어떤 상처를 의식한다면, 그와 대화하는 것이 두렵고 어색하여질 것이다. 물론 점점 더 그와 불편하여질 것이고 만남도 줄어들 것이다. 여기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죽이지 못한 정욕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행한 가해를 의식하게 함으로 죄의 수치심으로 가득 채운다.



이제 지난 날 어떤 죄든 탐닉했던 당신을 돌아보라. 그 죄는 당신의 마음의 충만함을 계속 갉아먹으며 당신의 교제의 생명과 생동감을 약화시키지 않았는가? 탐닉한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과 방법에 대하여 죽고, 차갑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당신은 마치 하나님은 대단히 멀리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한 대화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던가? 당신 생각에 지금이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정욕이 마침내 죽어야 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 문제가 제거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두렵고 슬픈 일인데, 하나님과 멀어짐이 비통한 배교로 자라서 결국 두려운 멸망으로 마칠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으로 죄책을 속죄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죄에 대한 매우 고통스러운 묵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다. 그 고난은 죄로 인하여 그분의 영혼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였다. 그것은 혼합되지 않는 엄중한 진노였고, 그 진노는 그에게 다 부어졌으며, 심지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 부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런 고통 가운데 두었던 그러한 죄악을 그렇게 쉽게 범할 수 있을까? - 존 플라벨

죄의 정죄의 세력에서 분명하게 해방된 최고의 신자들은 죄의 내재된 세력을 죽이는 일에 평생 수고해야 한다. - 존 오웬

8. 복음에 의한 죄 죽음인가? 율법에 의한 죄 죽음인가?



|||||

출처 | "The Strength of Sin", Sermons 130-131 in *The Works of Ralph Erskine*, Vol. 5

저자 | 랄프 어스킨(1685-1752).

스코틀랜드장로교(The Church of Scotland) 목사이자 유명한 설교가. 스코틀랜드 노섬벌랜드(Northumberland)주의 모닐로(Monilaws)에서 출생.

역자 | 조현목

|||||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부패한 본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끔찍한 자상함이 있다. 당신은 죄의 악함과 쓴 맛을 발견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이 항상 평화롭게 살아왔는가? 왜 그럴까? 이는 마치 강한 자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이 사탄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마 12:29 참조). 몸 안에 결석이 있고 이것이 돌아다닐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한



다면 당신은 아직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죄로 인해 아프지 않다면, 이는 당신의 마음이 아직 할례 받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죄의 권능은 복음을 통한 죄 죽임이 없는 곳에서 나타난다. 몇몇 사람들에게 대단한 변화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삶의 엄격함과 온유함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은혜의 원수이자 복음을 모르는 자이며, 결과적으로 죄의 권능인 율법(고전 15:56 참조)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참된 죄 죽임을 모르는 자들이다.

질문: 내가 죄를 죽이는 것이 복음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율법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대답:

1. 복음에 의한 죄 죽임과 율법에 의한 죄 죽임은 죄를 죽이는 원리에 있어서 다르다.

복음에 의한 죄 죽임은 다음과 같은 복음의 원리로부터 나온다.

- (1) 성령-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 (2)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행 15:9).
- (3)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고후 5:14).

반면, 율법적인 죄 죽임은 다음과 같은 율법적인 원리로부터 나온다.

- (1) 바리새인들이 좇았던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칭찬
- (2) 회심 이전의 바울과 같이 자기 의로부터 오는 교만
- (3) 지옥에 대한 두려움

- (4) 자연 양심
- (5) 다른 사람들의 본을 따르는 것
- (6) 성령의 촉구하심
- (7) 많은 경우 죄 자체의 권능(이는 한 죄가 다른 죄를 대항하기 위해 일어난다. 마치 음욕과 자기 의가 서로 씨름하는 것과 같다. 아마도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도 맹세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를 견고히 만들어 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죄와 씨름하는” 어떤 죄이다.)

2. 복음에 의한 죄 죽임과 율법에 의한 죄 죽임은 죄와 싸우는 무기가 다르다.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유익이라고 불리는 은혜의 무기를 가지고 죄와 싸운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

하지만 율법 아래 놓인 사람은 율법의 약속과 위협 때문에 죄와 싸운다. 그는 율법의 약속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과 승리를 얻을 것이야”라고 말하며, 율법의 위협으로 인해 “내가 이러저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라고 말한다. 때때로 그는 자신의 맹세와 결단이라는 답으로 달려가 스스로를 안전하다 생각하며 이것들을 무기로 하여 죄와 싸운다.

3. 죄 죽임의 대상이 다르다.



사실상 이 두 죄 죽임은 모두 죄를 죽이려 한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싸움은 특히나 그들의 삶과 행위와 관련이 있다. 참된 신자는 아람 사람들이 받은 명령처럼 죄와 싸우려고 한다(참조, 대하 18:30). 다시 말해, 작은 것이나 큰 것과 싸우지 말고 오직 왕과 싸우라고 한 것처럼 원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죄와 사망의 몸은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더욱 참신자를 괴롭게 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소유하는 것이다(창 3:15).

4. 죄와 싸우는 이유가 다르다.

은혜는 신자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거부하라고 가르치며 죄와 맞서 싸우게 한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며 주님과 신자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죄가 자신의 평안을 깨뜨리며 양심을 괴롭게 하고 그에게 분노와 정죄를 불러일으켜 그를 아프게 하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 이는 아이들이 먼지더미에서 놀지 않는 것과 같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먼지가 그의 옷을 더럽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 들어가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는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훼손하고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죄가 그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건한자들 중에서조차도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기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5. 죄를 죽이는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

에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롬 6:6). 율법주의자는 그가 현재 ‘살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살지도 모르기(may live)’ 때문에 죄를 버린다. 신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죽이지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지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죽인다. 신자는 그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죽이지만, 율법주의자는 죄 죽임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죽인다. 아마 그는 오랫동안 죄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여전히 그가 그의 행실을 모든 소망과 위로의 기초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다.

6. 죄 죽이기의 본질이 다르다.

율법주의자는 죄를 완전히 파괴하고자 하면서도 죄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죄를 죽일 수 있다 해도 그는 죄를 밀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자는 죄에 반하는 본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려 한다.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은 타협할 수 없고 어떠한 협정이나 합의가 있을 수 없으며,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와의 어떠한 연합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7. 죄와 싸우는 전쟁의 범위가 다르다.

신자는 외적으로도 모든 잘못된 행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거듭난 그의 모든 영혼이 죄를 대적하게 된다. 이는 외식하는 자와 율법주의자와는 차이가 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떤 죄 또는 다른 죄를 남기는데, 이는 죄에 대한 대항이 오직 그의 양심에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빛과 양심은 어떤 죄를 거부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그 죄를 받아들인다. 시간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율법주의자는 짧은



시간동안 죄를 반대한다. 하지만 은혜와 부패의 전쟁은 죽을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자는 끝까지 죄와 싸운다.

8. 성공 여부에 차이가 있다.

신자가 죄에 대항하여 싸울 때 처음이든 나중이든 죄에게 이기게 되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는 신자는 없다. 그리고 비록 그가 많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는 그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실제적인 죄들은 잘라냈다고 할지라도 그의 부패한 본성은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새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완고한 목의 쇠 힘줄(사 48:4)은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가 어떤 죄를 죽일 때 더 많은 다른 죄들이 고개를 들게 된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버리지 못한 모든 죄와 오염,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선한 의무들은 그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으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더욱 강하게 했다. 이는 가장 끔찍하고 위험한 죄이다. 지금까지 당신은 복음에 의한 죄 죽임과 율법에 의한 죄 죽임의 차이를 보았다. 이것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란다.

9. 내가 죄를 죽이는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출처 | *The Mortified Christian*

저자 | 크리스토퍼 러브(Christopher Love, 1618-1651).

장로교 목사요 작가; 유명한 설교자요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구
성원. 웨일즈의 글래모간셔의 카디프에서 출생.

역자 | 우선동

|||||||

주께서 나를 죄 죽이는 상태로 이끄셨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중 일부는 그 안에서 매우 만족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여섯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 죽임의 상태에 놓으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를 알고 있는가?

1. 당신은 이 특징으로 알 수 있다: 과거보다 지금, 죄에 넘어질

상황이나 기회에 빠질 것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죄 죽이는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은 대담하고 모험적이어서 당돌하게 죄를 범하지만, 반면에 죄를 죽인 마음은 모든 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매우 주의 깊다.

어떤 사람은 죄를 죽인 사람을 비둘기 또는 자고새에 비교한다. 매사냥 게임을 보면, 비둘기나 자고새가 매에 대해 갖고 있는 선천적인 공포와 두려움은 단지 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매의 깃털만 보고도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죄를 죽인 사람은 노골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자극이나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당신 안에서 발견된다면 나는 확실히 당신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당신이 유다서 1장 23절 말씀처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한다”면 당신은 죄를 죽인 자로서 은혜로운 틀과 영적인 기질 안에 있는 상태이다.

2. 또 다른 발견은 이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드러내 놓고 주어지고 또한 그 상황도 그 죄에 빠지도록 부추길 때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굴복시키며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으로 죄를 죽인 마음의 표시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한 틀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부패를 철저히 죽여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죄 죽이기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죄를 범하는 기회나 경우가 없을 때는 죄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죽인 마음은 죄를 짓는 모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죄를 삼갈 것이다. 창세기 39장 9절의 요셉은 간통죄를 저지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와 그의 여주인 둘만이 있었기 때

문에 그에겐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그에게 촉구했고 간청하며 죄를 짓도록 끈덕지게 요구했다. 그는 은밀함도 있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에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그를 자기 집의 지배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점과 장점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에게 기회, 강청, 은밀함, 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경우는 요셉에게 부정한 죄를 짓도록 분명히 제시되었고 동시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속에서 죄의 권능이 죽음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제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데, 가령, 죄를 범할 경우가 주어졌을 때 당신도 그 욕망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3. 예전보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경향이 당신의 마음에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죄 죽이는 상태로 이끌어 오셨다는 좋은 논증이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본성은 화약과 같이 어떤 유혹에도 불꽃처럼 타오르기 쉬웠다. 그러나 이제는 생나무 같이 불에 타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유혹은 당신이 그것에 굴복하도록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당신도 이러하다면, 당신은 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다.

4. 당신의 영혼 속에서 죄의 죽음과 은혜의 살림에 대한 비율이 좋게 나타난다면, 당신은 죄를 죽인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여, 주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만 없애는 반쪽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있는 죄를 다스리신다면, 그분은 죄와 대항하여 당신의 영혼 속에 살아 행동할 은혜의



일도 하실 것이다. 죄 죽이기와 죄의 죽음은 소생과 은혜의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죄가 죽으면 은혜가 당신의 영혼 안에 살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실행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정욕에 강제적인 제어가 놓인다면 그것은 부패의 죽임이 아닌 단지 중단일 뿐이다. 그것들은 죽은 듯이 보일 뿐이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5. 죄 죽이기는 깊은 굴욕에 의해 어떤 부패를 억제하는 특성에 의해 발견된다. 참된 굴욕이 선행되지 않는 죄 죽이기는 죄로부터의 단순한 중단일 뿐이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지 않았다면 당신의 죄는 아직 참된 죄 죽이기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펜싱 선수가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때로는 상대에게 약간의 타격이나 두려움을 주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없다. 어떤 사람은 죄와 더불어 노닥거리지만 결코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한다. 진정으로 죄에 대해 깨어있는 자는 마치 전사와 같다. 그는 죽이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는 그의 죄를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죄가 그를 죽일 것이다. 자, 당신을 이것으로 시험해보라: 당신은 정욕을 가지고 놀기만 하는 펜싱 선수인가, 아니면 죄에 대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전사인

가? 당신은 죄에게 약간의 겁을 줄 뿐인가 아니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는가?

6. 죄 죽이기는 그것의 폭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데, 이는 죄 죽이기는 하나의 특정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 또는 죄의 몸통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의 온 몸을 지키기 위해 지상에 있는 지체들의 죄를 죽이길 권면하고(간음, 부정함 등), 육체와 함께 죄의 몸 아래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권고한다. 그것은 죄 죽이기인 동시에 그 몸이 죽어가는 것과 같다. 당신은 죽음이란 팔이나 다리, 또는 두어 지체에게 나타나는 발작이 아니라 몸의 모든 지체가 죽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죄 죽이기는 죄의 한 요소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몸통에 대한 점령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억압하는 것이 당신의 육체와 부패의 덩어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다음 내용으로 위안을 삼으라: 모든 죄를 죽이는데 있어서 당신은 당신의 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 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께서 어떠한 육체의 욕망이라도 죽이고자 실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다: 영혼에게 죄의 모든 악을 확신시켜주시고, 모든 핑계를 차단하시고, 모든 기만을 발견케 하시고, 모든 회피를 멈추게 하시며, 위선에 답을 주시고,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혐오케 하시고 죄를 느끼게 하신다. 성령만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 받을 것을 굳게 기대하게 하신다. — 존 오웬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개혁복음주의회 시리즈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들의 주제별 글 모음인
[채플라이브러리]의 소책자를
채플라이브러리의 공식적인 허락하에
www.chapellibrary.org로부터 글을 가져와
정기적으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있습니다.

개혁복음주의회 홈페이지(<https://ccrtf.modoo.at/>)
에서 구매 및 정기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호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제2호 그리스도와의 연합

제3호 배도

제4호 필수적인 기도

제5호 죄 죽이기

개혁복음주의회 제 5호

죄 죽이기

저자: 아더 핑크/ 존 플라멜/ 벤자민 니들러/ 호라티우스 보나르/ 존 오웬/

마틴 로이드 존스/ 에스겔 홉킨스/ 랄프 어스킨/ 크리스토퍼 러브

역자: 황모세/ 오병재/ 스테반 황/ 안선형/ 백금옥/ 이종원/ 김성환/ 조현목/

우선동

Christ-Centered Reformed Theology Fellowship translates and
publishes this material from (www.chapellibrary.org)
by permission of Chapel Library.

개혁복음주의회는 채플라이브러리의 공식적인 허락 하에
www.chapellibrary.org로부터 이 글을 가져와 번역하고 출판합니다.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처 개혁복음주의회

등록번호 제2016-000024호 / 등록일 2016년 12월 28일

주 소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78번길 28-10 103동 202호

*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